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1. 7.(목)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업계의 글로벌 통상환경 영향 점검

- 장관, 경제단체·유관기관·업종별 협회 등과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7일(목)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단체 : 한경협, 무협, 상의, 중견련, 코트라, 석유·가스공사,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조선·기계·바이오·전자·섬유·석유화학·재생에너지 분야 협회 등

금번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관이 원팀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 및 업종별 수출·투자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기업이 미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신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안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트럼프 신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하여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전담반(TF)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오인봉 (044-203-56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